

한국어 품사분류에서 감탄사의 통시적 분석

사하부트지노바 루이자 조이로브나

(남서울대학교)

Sakhabutdinova, Luiza Zoirovna. (2024). A diachronic analysis of interjections in Korean part of speech classificatio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32(2), 49-71. In this paper, I examine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the evolution of names and functions of Korean interjections based on word recognition and conceptual frameworks. I examine the criteria for word class classification found in grammar books, focusing on the grammar research achievements during the first period (1897-1933) and the second period (1934-1963) as covered by Koh Young Geun (2001). I analyze the logical progression by comparing the content of grammar books and textbooks from the first period (1897-1933) and the second period (1934-1963) up to the Unification of School Grammar in 1963. It has been established that the function of interjections and their placement in the word class hierarchy can vary based on how words are recognized and the criteria used for word class classification. Interjections can be defined in relation to other parts of speech, either as a subtype of another part of speech or as an independent category. For instance, when postpositional particles, endings, conjunctions, and similar elements are recognized as distinct parts of speech, the position of interjections in the word class hierarchy changes. Research has shown that the Korean parts of speech system has varied from up to 13 parts of speech to as few as 5, with some studies indicating that interjections were sometimes omitted from these classifications. In my study I examine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interjections as a part of speech and their position within the Korean grammar system through a diachronic analysis.

주제어(Key Words): 문법(grammar), 체계(system), 품사(word class), 의미(meaning), 기능(function), 형태(form), 명칭(name)

1. 들어가기

본고는 한국어 감탄사의 문법 범주와 품사의 역할, 명칭의 변화 과정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개화기부터 최근까지 남한에서 이루어진 한국어 문법 연구에 있어 특히 품사분류체계에 초점을 두어 감탄사의 발달사를 통시적 관점에서 살피고자 한다. 한국어 문법 연구 업적을 고영근 외(2001)에서 제시한 3시기를 바탕으로 제1기(1897년-1933년)와 제2기(1934년-1963년)에서 이루어진 한국어 문법 연구를 살피고 1963년에 공포된 『학교문법통일안』에서 다루는 감탄사도 다룬다.¹⁾

개화기부터 1960년대까지의 문법 연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시기 연구의 초점이 품사분류였기 때문이다. 1960년대 후반에는 변형생성문법(transformational generative grammar)이 등장하여 품사론이 연구 대상에서 멀어지고 주로 통사론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구본관, 2010, p. 180). 이 시기에도 한국어 문법 연구에 있어 문법서와 교과서 같은 많은 업적을 볼 수 있으나 품사분류, 특히 감탄사에 대한 접근이 제1기(1897년-1933년)와 제2기(1934년-1963년) 연구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감탄사는 품사의 한 유형이고 특정 문맥에서 화자의 놀라움, 느낌, 응답 등을 뜻한다. 감탄사는 대부분 언어에서 등장하는 보편적 품사(word class)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와 관련 기준연구들에서 품사분류 기준 체계를 주로 단어의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선정해왔다(구본관, 2010; 최형용, 2013; 구본관 외, 2015). 본고는 단어와 품사에 대한 의식에 따라 품사분류 기준의 차이점을 다루고 이에 따른 감탄사의 품사와 문장성분의 역할, 형태적 특성에 따른 자질을 분석한다. 감탄사를 다른 품사의 하위 분류로 보는지, 독립 품사로 보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문장성분으로서의 감탄사는 다른 문장성분에 의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독립언어에 속한다(남기심 & 고영근, 1985/1993; 이익섭, 2005; 구본관 외, 2015; 최형용, 2016). 최근까지 이루어져 왔던 한국어 문법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품사 체계에 감탄사를 포괄시켰는데 앞서 언급한 언어적 특징에 따라 품사분류 체계에서 감탄사의 배열순서가 달라져 왔다. 이 외에도 감탄사의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와 통사적 기능에서도 변화를 볼 수 있다.

구본관(2010, p. 182)에 따르면 품사분류 기준 중에 의미가 품사의 명명 부여와 관련이

1) 남한에서의 한국어 문법 연구사의 제3기는 1964년부터 시작하여 최근까지 이루어져 왔던 연구를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가 본격적 한국어 문법 연구라 한다. 이 시기에 박창해(1964), 유창돈(1964), 한국국어교육연구회(1964), 안병희(1965, 1967), 이맹성(1968), 이흥배(1970), 최현배(1971), 이기문(1972), 장석진(1973), 이승욱(1973), 허용(1969, 1975) 연구가 성과가 속한다(고영근 외, 2001, p. 45).

있다. 현대한국어 감탄사에 해당하는 문법 범주의 명칭이 역사적으로 달리 나타나는데 이는 고유어계 어휘 사용과 한자어계 사용과 연관이 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각 연구에서 감탄사의 대상과 인식에 따라 감탄사의 정의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한국어 감탄사의 이런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제1기(1897년-1933년)와 제2기(1934년-1963년) 한국어 문법 연구 중에 몇 가지 문법서와 교과서에서 언급된 감탄사의 개념 정리와 예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1963년의 『학교문법통일안』에 이르기 전까지 감탄사의 발달과정을 통시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2. 시기별 감탄사 연구

2.1. 제1기 (1897-1933) 문법 연구

남한에서의 한국어 문법 연구사의 제1기가 언문수리(諺文修理)를 위한 문법 연구로 평가된다(고영근 외, 2001). 이 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를 제시할 수 있다.

(1) 제1기(1897-1933)

이봉운(1897), 최광옥(崔光玉)(1908), 김규식(金奎植)(1908-09?), 유길준(兪吉..)(1909), 김희상(金熙祥)(1909, 1911), 주시경(周時經)(1910, 1914), 남궁억(南宮億)(1913?), 김두봉(1916, 1922), 안확(安廓)(1917, 1923), 이규영(李奎榮)(1920), 김원우(金元祐)(1922), 이필수(李弼秀)(1922), 이규방(李奎昉)(1923), 장지영(張志映)(1924), 김윤경(金允羶)(1925, 1932), 강매(姜邁)·김진호(金鎭浩)(1925), 이상춘(李常春)(1925), 김희상(1927), 홍기문(洪起文)(1927), 정렬모(鄭烈模)(1927-1928), 이완응(李完應)(1929), 이병기(李秉岐)(1929-1930), 오창환(吳昌煥)(1930), 최현배(崔鉉培)(1930), 박승빈(朴勝彬)(1931, 1935), 박상준(朴相)(1932), 신명균(1933),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1933) (고영근 외, 2001, pp. 44-45)

제1기(1897-1933)에는 특히 언문수리(諺文修理)를 주요 목표로 삼았고 단어의 개념, 정의, 문법 중에도 형태론과 통사론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한국어 문법 흐름을 검토하기 위해 최현배(1955, 1971, 1999), 김석득(1983, 2009), 金東鉉(1998), 고영근 외(2001), 최형용(2012, 2015)의 한국어 문법 연구 중에 현대한국어 감탄사에 해당하는 논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제1기 (1897-1933) 한국어 문법 연구

저자	문법서 및 연도	품사 체계	감탄사의 명칭	품사분류 기준
최광옥	『대한문전 (大韓文典)』 (1908)	8품사: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후사, 접속사, 감탄사	감탄사	의미 기능
김규식	(1908-1909?) ²⁾	9품사: 명사, 대명사, 동사, 형동사(形動詞), 형용사, 부사, 후사, 접속사, 감탄사	감탄사	
유길준	『대한문전 (大韓文典)』 (1909)	8품사: 명사, 대명사, 동사, 조동사, 형용사, 접속사, 첨부사, 감동사(感動詞)	감동사 (感動詞)	의미 기능
김희상	『초등국어사전』 (1909)	7품사: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 토(吐)	감탄사	기능 ³⁾
	『국문문법』 (1905)	7품사: 명호(名號), 형용(形容), 동작(動作), 간접(間接), 인접(引接), 경각(警覺), 조성(助成) ⁵⁾	경각(警覺)	기능 ⁶⁾
	『말』 (1908)	6품사: 명호(名號), 형용(形容), 동작(動作), 인접(引接), 간접(間接), 조성(助成)	X	기능
주시경 ⁴⁾	『고등국어문전』 (1909)	9품사: 명호(名號), 동작(動作), 형용(形容), 형명(形名), 형동(形動), 관련(關聯), 접속(接續), 감동(感動), 완구(完句)	감동 (感動)	기능
	『국어문법 (國語文法)』 (1910)	9품사: 입, 엇, 움, 꺾, 잇, 언, 억, 늘, 꺾	늘	기능 ⁷⁾
	『말의 소리』 (1914)	6품사: 입, 엇, 움, 꺾, 잇, 꺾	늘 (입에 포함)	형식
남궁억	『조선어법』 (1913?) ⁸⁾	9품사: 명사, 대명사, 동사, 토, 형용사, 부사, 접속사, 후치사, 감탄사	감탄사	
김두봉 ⁹⁾	『조선말본』 (1916) 『김터조선말본』 (1922)	9품사: 입, 언, 움, 꺾, 잇, 맺, 언, 억, 늘	늘	
안환 ¹⁰⁾	『조선문법』 (1917)	10품사: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조동사, 형용사, 부사, 후사, 접속사, 감동사	감동사	

저자	문법서 및 연도	품사 체계	감탄사의 명칭	품사분류 기준
이규영	『현금조선문전』 (現今朝鮮文典) (1920)	9품사: 입, 읊, 언, 언, 억, 늑, 만, 금, 잇	늑	
강매· 김진호	『잘뻗은조선말과글의본』 (1925)	7품사: 이름말, 꼴말, 움직임말, 꿈임말, 도움말, 잇음말, 늑임말	늑임말	
홍기문	『조선문전요령』 (1927)	9품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 격사, 후계사, 접속사, 종결사	감탄사	
이완응	『중등교과조선어문전』 (1929)	11품사: 명사, 수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존재사, 조용사, 조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	감탄사	
이병기	『조선문법강화/조선어 강화』 (1929-1930)	7품사: 명사, 형용사, 동사, 조사, 접속사, 부사, 감동사	감동사	
오창환	『고려문전』 (1930)	8품사: 명사, 형용사, 동사, 조사, 종지사, 접속사, 부사, 감탄사	감탄사	

- 2) 고영근 외(2001)의 논의를 그대로 옮김.
- 3) 金東鉉(1998, p. 25) 김희상(1927) 품사분류 참고.
- 4) 김원우의 『조선정음문법』(1922)은 주시경의 『고등국어문전』(1909)와 『국어문법』(國語文法)(1910)에 입각하여 품사체계를 설정하였다. 장지영(1924)의 『조선어전』도 주시경의 품사체계를 다루었다(고영근 외, 2001, pp. 83-86).
- 5) 『국문문법』(1905)의 감탄사에 대한 자세한 개념 정리는 다음과 같다.
 - (i) 경각(警覺): 무슨 의외에 감정이 일어나 스스로 놀라는 것 (최형용, 2012, p. 316).
- 6) 최형용(2012)에 따르면 앞서 살핀 문법서에서는 주시경의 품사분류 기준을 명시한 것이 아니다. 주시경의 문법서와 품사를 분석한 결과 『국문문법』(1905), 『말』(1908), 『고등국어문전』(1909), 『국어문법』(國語文法)(1910)에서는 기능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말의 소리』(1914)에서는 형식이 품사분류 기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 7) 金東鉉(1998:26)는 주시경의 『국어문법』(國語文法)(1910)의 9품사를 기능과 의미에 따라 분류하였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 8) 고영근 외(2001)의 논의를 그대로 옮김.
- 9) 이상춘(1925) 『조선어문법』은 김두봉의 『조선말본』(1916)에 근거하고 이규영의 『현금조선문전』(現今朝鮮文典)(1920)을 참조하여 10품사를 설정하였다.
- 10) 이필수(1922) 『선문통해』에서는 안화(1917)를 다루었다(고영근 외, 2001, p. 85).

저자	문법서 및 연도	품사 체계	감탄사의 명칭	품사분류 기준
최현배	『조선어의 품사분류론』 (1930)	10품사: 이름씨, 대이름씨, 셈씨, 움죽씨, 어떻씨, 잡음씨, 어떤씨, 어찌씨, 느낌씨, 토씨	느낌씨	의미 기능: 마디꾸림씨, 꾸림씨
박승빈	『조선어학강의요지』 (1931)	12품사: 명사, 대명사, 존재사, 지정사, 형용사, 동사, 조용사(보조용언), 조사, 관형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	감탄사	
박상준	『개정철자법준서 조선어법』 (1932)	9품사: 명사, 대명사, 수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감동사, 조사	감동사	
김윤경	『조선말본』 (1932)	9품사: 임씨, 얻씨, 음씨, 꺾씨, 잇씨, 맺씨, 언씨, 억씨, 늑씨	늑씨	의미 구조기능
신명균	『조선어문법』 (1933)	6품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발사, 조사	감발사	

위의 표에서 제1기 한국어 문법 연구에 근거한 품사 체계 속 감탄사의 배열순서, 명명
과 통사적 기능을 볼 수 있다. 표 1에서 나와 있듯이 품사 체계의 배열순서에서 감탄사에
해당하는 문법 범주가 마지막에 배열되었다.

최광옥(1908)의 『대한문전(大韓文典)』은 언어론(言語論)과 문장론(文章論)으로 나누어지
고 품사론이 언어론 부문에 속한다. 최광옥(1908)의 품사 체계가 8품사를 이루고 이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후사, 접속사, 감탄사이다. 여기서는 의미를 품사분류 우선 기
준, 기능을 부차적 기준으로 보았다. 품사 중에 무형명사, 대명사, 동사와 감탄사는 의미에
근거한 부류가 된다. 형용사와 부사는 어휘적 의미와 구조적 기능을 바탕으로 분류한 것이
다. 후사, 접속사, 정격동사와 변격동사 변체명사(變體名詞)는 구조적 기능에 기초한 구별이
다. 최광옥(1908)은 주 품사와 품사의 하위분류를 의미와 기능에 따라 분석하였다(김석득,
2009, pp. 287-289). 김규식(1908-1909?)에서는 품사 체계를 9품사 명사, 대명사, 동사, 형동사
(形動詞), 형용사, 부사, 후사, 접속사, 감탄사로 분류하였는데 품사 하나가 더 증가하였다.

또한 유길준(1909)의 『대한문전(大韓文典)』에서는 품사 체계를 최광옥(1908)과 마찬가지로
8품사로 보고 있으나 품사의 체계는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유길준이 규정한 8품사
로는 명사, 대명사, 동사, 조동사, 형용사, 접속사, 첩부사, 감동사(感動詞)로 구성되어 있다.
품사 체계가 다시 8품사로 돌아갔으나 현대한국어에서 감탄사에 해당하는 품사의 이름이 감
동사(感動詞)로 변경되었다. 유길준(1909)도 최광옥(1908)과 마찬가지로 품사분류 기준을 의미

와 기능으로 보았다(김석득, 2009, p. 313). 유길준(1909)은 감동사로 (2)와 같은 예시를 들었다.

- (2) 감동사: 感動詞라 ㅎ는 者는 人의 觸發 ㅎ는 感動을 表小 ㅎ는 語이
라- 어, 하, 음, 앓자, 잇기... (金東鉉, 1998, p. 25)

김희상(1909)의 『초등국어사전』에서는 품사 체계가 7품사로 바뀌고 품사의 배열순서가 달라졌다. 감동사(感動詞)는 마지막 순서에서 두 번째에 놓이고 토(吐)가 설정되었다.

- (3) 感歎詞: 感歎詞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嘯기어 嘯息하는 말이다.
- 응, 암, 예구, 후, 흥... (金東鉉, 1998, p. 28)

(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김희상(1909)에서는 품사를 기능에 따라 나누었고 감동사(感動詞)를 느낌과 연관시키고 있다. ‘응, 암, 예구, 후, 흥’을 예로 들었다.

주시경의 한국어 문법 연구 성과로 『국문문법』(1905), 『말』(1908), 『고등국어문전』(1909), 『국어문법』(國語文法)(1910), 『말의 소리』(1914)가 있다. 우선, 『국문문법』(1905)에서는 품사 체계를 7품사로 구분하고 명호(名號), 형용(形容), 동작(動作), 간접(間接), 인접(引接), 경각(警覺), 조성(助成)으로 설정하였다. 이중 경각(警覺)은 감탄사에 해당한다. 감탄사에 대해 (4)와 같이 설명하였다(최형용, 2012, pp. 316-319).

- (4) 경각(警覺): ‘무슨 의외에 감정이 일어나 스스로 놀나는 것’ (최형용, 2012, p. 316)

『말』(1908)에서는 경각(警覺)(감탄사)이 빠지고 6품사로 변경된다. 『국문문법』(1905)와 『말』(1908)에서는 주시경이 품사분류 기준으로 기능을 중시하였다(최형용, 2012, pp. 319-320).

한편, 주시경의 『고등국어문전』(1909)¹¹⁾에서도 기능이 주요 품사분류 기준이 되었으나 품사의 수와 명칭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품사를 9개로 보고 명호(名號), 동작(動作), 형용(形容), 형명(形名), 형동(形動), 관련(關聯), 접속(接續), 감동(感動), 완구(完句)로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특히 감탄사의 명칭이 『국문문법』(1905)의 경각(警覺)에서 감동(感動)으로 변경되고 다시 등장한 것이다. 감동(感動)의 용례로 ‘하, 아, 어, 참, 허허, 오, 애고’가 있었다. 여기서도 기능에 근거하여 품사를 분류하였다(최형용, 2012, pp. 322-323).

또한 『국어문법』(國語文法)(1910)¹²⁾에서는 『고등국어문전』(1909)과 마찬가지로 기능에

11) 『고등국어문전』(1909)의 감탄사와 이에 따른 예시가 다음과 같다.
(i) 감동(感動): 하, 아, 어, 참, 허허, 오, 애고 (최형용, 2012, pp. 322-323).
12) 『국어문법』(1910)의 품사 체계와 각각 용례가 다음과 같다.
(i) 놀: 놀나거나 嘯기어 나는 소리를 이르는 기를 다 이름이라
(본) 아, 하, 참 (최형용, 2012, p. 326).

의한 9품사 체계를 볼 수 있지만 품사의 명칭이 다시 달라졌다. 품사 체계는 ‘임, 엇, 움, 젓, 잇, 언, 억, 놀, 꺾’으로 변경되어 감탄사의 명칭이 ‘놀’이었다(최형용, 2012, pp. 325-326).

(5) 놀: 놀라거나 느끼어 늦기어 나는 소리를 이르는 기를 다 이름이 라. 아, 하, 참
(최형용, 2012, p. 325)

여기서는 ‘놀’은 ‘놀라거나 늦기어 나는 소리를 이르는 기를 다 이름이라’라고 설명하고 ‘아, 하, 참’ 등을 용례로 들고 있다. 기존 논의에 따르면 주시경이 ‘놀’을 나중에 수정하는 단계에서 마지막에 추가한 것이다. 『국어문법』(國語文法)(1910)에서는 품사의 명칭이 달라졌지만 품사의 수와 분류 기준이 지속적으로 9품사와 기능 기준이다(최형용, 2012, pp. 325-326).

그러나 주시경의 『말의 소리』(1914)¹³⁾에서는 품사 체계가 6품사로 줄어들고 형식이 품사분류 기준이 된다. 여기서는 주시경의 품사분류 기준의 전환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품사가 ‘임, 엇, 움, 젓, 잇, 꺾’으로 남고 ‘언, 억, 놀’을 ‘임’에 포함시켰다. 이는 바로 형식을 기준으로 삼아 품사를 분류한 것이기 때문이다. 형식을 기준으로 볼 때 단어의 가변성이 초점이 된다(최형용, 2012, pp. 328-329). 남궁억(1913?) 『조선어법』에서는 9품사(명사, 대명사, 동사, 토, 형용사, 부사, 접속사, 후치사, 감탄사)를 지정하여(고영근 외, 2001, pp. 73-74) 앞선 연구와 달리 본고의 연구 대상인 문법 범주를 ‘감탄사’라고 하였다.

한편, 김두봉(1916) 『조선말본』에서는 주시경의 『국어문법』(國語文法)(1910)의 품사체계를 따라 9품사를 정하고 이를 ‘임, 언, 움, 젓, 잇, 맺, 언, 억, 늑’이라고 하였는데 ‘늑’은 감탄사이다. 여기서는 주시경의 『말의 소리』(1914)에서 ‘임’에 속한 관형사, 부사, 감탄사가 다시 ‘언’, ‘억’, ‘늑’으로 분류된 것이다(고영근 외, 2001, pp. 76-78).

안확(1917) 『조선문법』에서는 품사의 수가 10개로 늘어나고 명칭도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조동사, 형용사, 부사, 후사, 접속사, 감동사’로 설정하였다(고영근 외, 2001, p. 80). ‘아, 하, 애고’ 등을 감동사의 예로 들었다(최형용, 2015, p. 152). 감탄사의 명칭이 다시 ‘감동사’로 등장하였고 마지막 순서에 배열되었다.

이규영(1920) 『현금조선문전』(現今朝鮮文典)은 김두봉의 『조선말본』(1916) 체계에 근거하여 품사체계를 설정하였는데 9품사 ‘임, 움, 언, 언, 억, 늑, 만, 금, 잇’이라고 하여 감탄사가 다시 ‘늑’으로 명명되었다(고영근 외, 2001, pp. 81-82).

장매 & 김진호(1925)의 『갈뿔은조선말과글의본』에서는 김두봉(1916) 『조선말본』의 품사 체계에 기초하여 품사를 분류하였지만 품사의 수와 명칭에 있어 상이한 점이 있다. 품사를 7개로 정하고 이는 이름말, 꿀말, 움직임말, 꿈임말, 도움말, 잇음말, 늑임말이고 ‘늑임말’은

13) 『말의소리』(1914)의 품사 체계와 각각 용례가 다음과 같다.

(i) 임: (보기) 사람, 나무, 돌, 흙, 물, 뜻, 아름, 나, 그, 너, 다, 더, 잘, 매우, 이리, 참, 아, 하, 어 (최형용, 2012, p. 329).

감탄사이다(고영근 외, 2001, pp. 87-88).

홍기문의 『조선문전요령』(1927)에서는 서양의 품사분류법에 근거하여 품사를 분류하고 9품사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 격사, 후계사, 접속사, 종결사’로 분류하였다(고영근 외, 2001, p. 94). 품사 배열순서에는 감탄사가 5번째 자리에 오는 것은 그 전 문법연구에서 보이지 않아 서양문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완웅의 『중등교과조선어문전』(1929)에서도 본고의 연구 대상을 ‘감탄사’라고 하고 11 품사(명사, 수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존재사, 조용사, 조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를 설정하였다. 또한 이병기의 『조선문법강화/조선어강화』(1929-1930)에서는 7품사를 설정하고 이를 명사, 형용사, 동사, 조사, 접속사, 부사, 감동사라고 하였다. 감동사를 부사와 접속사와 함께 ‘부사’로 묶었다. 이 외에도 오창환의 『고려문전』(高麗文典)(1930)에서 명사, 형용사, 동사, 조사, 종지사, 접속사, 부사, 감탄사로 8품사로 정리하였다(고영근 외, 2001, pp. 96-97). 여기서 감탄사로 명명한 점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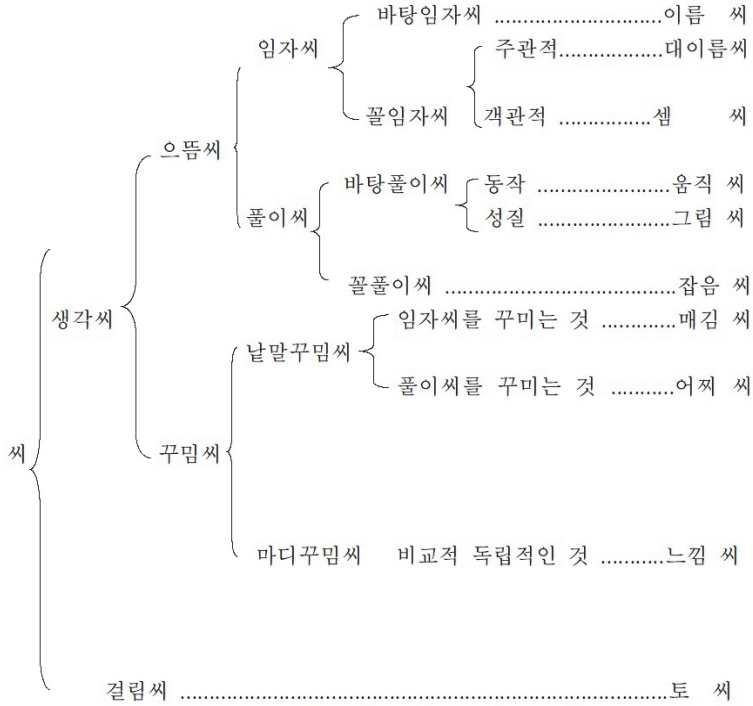
최현배의 「조선어의 품사분류론」(1930)에서는 품사를 10가지로 설정하였고 각각의 품사 이름을 이름씨, 대이름씨, 셈씨, 움죽씨, 어떻씨, 잡음씨, 어떤씨, 어찌씨, 느낌씨, 토씨로 명명하였다. 최현배는 품사분류 체계의 기능을 1차적 기준으로 보고 형태와 의미를 2차적 기준으로 보았다. 특히 감탄사에 해당하는 “느낌씨”를 꾸밈씨에 포함시킨 것은 최현배가 기능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고영근 외, 2001, pp. 100-101). 최현배의 체계에서 품사분류를 고유어로 설정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최현배가 (6)과 같이 설명하였다.

(6) “나의 이름 고친 까닭은 따로 있다. 이제, 이를 말하여 둘 필요가 있다.

주 스승님의, 우리말의 본을 풀이하는 데에는, 우리말로 그 갈말을 삼아야 한다는 생각에 나는 전연히 동감한다. 그리하여, 전에 김○○(..○○) 님이 그 “조선 말본”을 기초할 적에, 될 수 있는 대로 두 스승님의 쓰시던 갈말을 그대로 받아쓰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부탁한 일까지 있었다. 그랬으면서도, 이제 이렇게 고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는 다름이 아니다. 한 말로 하면, 우리 말본을 쉽게하여, 용이하게 이해되며, 일반적으로 보급되도록 하여 함에서 나온 일이다.” (최현배, 1955, pp. 207-208)

(6)에서 보듯이 최현배(1955)가 주시경의 품사 명명을 받아들하려고 했지만 품사 명명이 어렵다고 파악해서 이를 다시 ‘이름씨, 대이름씨, 셈씨, 움죽씨, 어떻씨, 잡음씨, 어떤씨, 어찌씨, 느낌씨, 토씨’로 풀어 쓴 것이다. 최현배(1955)에서는 기능에 따라 품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7)



(최현배, 1955, p. 206)

(7)에 나온 바와 같이 감탄사에 해당하는 ‘느낌씨’가 꾸밈씨에 속하지만 ‘비교적 독립적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최현배(1955)에서는 감탄사를 현대한국어에서 수식어인 꾸밈씨로 보고 있으나 감탄사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다. 최현배가 느낌씨에 대해 (8)과 같이 설명하였다.

(8) “느낌씨는 마디나 월 위에 서어서 그 아래의 마디나 월을 꾸미는 씨이니: 그 뜻이 항상 느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느낌씨라 일컫느니라.

보기를 들면,

아, 밝은 달이 떴구나! 참, 반가운 일일세!

허허, 이런 일이 있나! 아차, 잘못 되었군! (최현배, 1955, p. 187)

최현배(1955)는 감탄사를 느낌과 관련시켜 ‘느낌씨’라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아, 허허, 참, 아차’ 등이 감탄사에 해당한다.

한편, 박승빈의 『조선어학강의요지』(1931)에서는 품사를 12개로 보았고 ‘명사, 대명사, 존재사, 지정사, 형용사, 동사, 조용사(보조용언), 조사, 관형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로 구분하였다(고영근 외, 2001, p. 103). 박승빈은 최현배와 달리 품사를 다시 한자어로 바꾸었다. 박상준의 『개정철자법준서 조선어법』(1932)에서는 9품사를 정하였고 명사, 대명사, 수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감동사, 조사라고 하였다. 감동사는 감탄사이다(고영근 외, 2001, p. 103). 박상준은 박승빈과 달리 품사를 9개로 보았고 조용사, 관형사, 존재사를 품사 목록에 두지 않았다.

김윤경의 『조선말본』(1932)에서는 박상준과 마찬가지로 9품사로 보았지만 용어를 한자어로 잡았고 ‘임씨, 언씨, 음씨, 겹씨, 잇씨, 맺씨, 언씨, 억씨, 늑씨’로 하였다. 여기서는 ‘늑씨’는 감탄사이다(고영근 외, 2011, pp. 107-108). 김윤경은 품사를 의미와 구조 기능에 따라 분류하였고 ‘늑씨’의 예로 ‘허허, 여보’를 들었다(김석득, 1983, p. 394). 이 외에도 신병균의 『조선어문법』(1933)에서는 품사 체계를 6품사라고 하였고 이를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발사, 조사라고 분류하였는데 감발사는 감탄사이다(고영근 외, 2011, pp. 108-109).

앞서 한국어 문법 제1(1897-1933) 연구에서 살핀 것처럼 감탄사의 연구가 여러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감탄사의 품사 지위, 문법 범주, 명명의 변화 등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각 연구의 단어에 대한 인식, 조사와 어미를 단어로 인정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품사분류 기준에 있어 형식, 기준과 의미가 있는데 어느 기준을 우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품사 체계와 품사의 배열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시경의 『국문문법』(1905), 『말』(1908), 『고등국어문전』(1909), 『국어문법』(國語文法)(1910), 『말의 소리』(1914)의 문법체계에 감탄사에 해당하는 문법의 배열이 마지막 순서가 아니라 뒤에서 두 번째 자리에 놓이고 ‘끗’이 감탄사를 후행한다. 다른 논의에서도 조사나 어미를 단어로 인정할 경우 품사로 보았고 배열순서에서 마지막에 넣었다.

주시경의 품사 체계를 다룬 후속 연구를 주시경학과라고 하는데 김두봉(1916), 김완우(1922), 장지영(1924) 등이 있다. 제1기(1897년-1933년) 한국어 문법 연구에서는 6품사에서 12품사까지 품사 체계를 정리하였고 감탄사를 꾸밈씨로 처리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감탄사의 명명의 경우 고유어와 한자어 용어 사용을 볼 수 있다. 이는 ‘감탄사, 감동사, 경각, 감동, 놀, 늑, 늑입말, 느낌씨, 늑씨’였다. 주시경, 최현배 등에서 한자어 대신 고유어 사용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감탄사를 ‘놀, 느낌씨’로 처리하였다.

2.2. 제2기 (1934년-1963년) 문법 연구

제2기 한국어 문법 연구가 1934년-1963년에 해당하고 이 시기에 규범문법의 확립과 역사문법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를 제시할 수 있다(고영근 외, 2001).

(9) 제2기 (1934년-1963년)

최현배(1934, 1936, 1937), 장지영(1937), 심의린(沈宜麟)(1936, 1949), 권영달(權寧達)(1941), 양주동(梁柱東)(1942, 1947), 박종우(朴鍾禹)(1946), 이상춘(1946), 정렬모(1946), 홍기문(1947), 박창해(1946), 유재현(柳在軒)(1947), 김근수(1947), 조선어학회(1947), 장하일(1947), 김윤경(1948), 박태윤(1948), 이영철(1948), 이희승(1949), 이인모(1949), 정인승(1949), 이승녕(李崇寧)(1954, 1956, 1961), 최현배(1955, 1956a), 허웅(寧雄)(1955), 김민수 외 (1960), 김민수(金敏洙)(1960), 이기문(李基文)(1961) (고영근 외, 2001, p. 45)

(9)에서는 1934년-1963년 사이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제 2기(1934년-1963년) 한국어 문법 연구 품사 체계와 관련된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결과이다.

표 2. 제2기 (1934년-1963년) 한국어 문법 연구

저자	문법서 및 연도	품사 체계	감탄사의 명칭	품사분류 기준
최현배 ¹⁴⁾	『중등조선말본』 (1934)	10품사: 이름씨, 대이름씨, 셈씨, 움죽씨, 어떻씨, 잡음씨, 어떤씨, 어찌씨, 느낌씨, 토씨	느낌씨	의미 기능 (느낌씨 → 마디꾸딴씨, 꾸딴씨) ¹⁵⁾
	『중등교육조선어문법』 (1936)			
	『우리말본』 (1937)			
	『고등말본』 (새판) 1956년			
심의린	『중등학교조선어문법』 (1936)	10품사: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존재사, 조동사, 조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	감탄사	
권영달	『조선어문정체』 (1941)	6품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발사, 조사	감발사	감발사 → 수식언
이상춘 ¹⁶⁾	『국어문법』 (1946)	6품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 토(조사, 접속사, 종지사)	감탄사	
정렬모	『신편고등국어문법』 (1946)	5품사: 명사, 동사, 관형사, 부사, 감동사	감동사	기능

14) 박종우의 『한글의 문법과 실제』에서는 최현배의 문법체계가 일치하지만 이 품사체계에는 지정사가 없다 (고영근 외, 2001, pp. 123-124).

15) 金東鉉(1998, p. 33)에서는 최현배(1937)의 품사분류 기준을 ‘구실, 꼴, 뜻’으로 설명하였다.

16) 이영철의 『중등국어문법』(1948)의 품사체계가 이상춘의 『조선어문법/국어문법』(1925, 1946)과 일치하다 (고영근 외, 2001, p. 140).

저자	문법서 및 연도	품사 체계	감탄사의 명칭	품사분류 기준
홍기문	『조선문법연구』 (1947)	5품사: 체사, 개사, 용사, 투사, 부사		
김근수	『중한국문법책』 (1947)	13품사: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존재사, 지정사, 관형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 조용사, 조사	감탄사	준체인
조선어 학회	『큰사전』 (1947)	10품사: 이, 대, 썬, 어, 읊, 잡, 언, 엇, 느, 토	느	
김윤경	『나라말본』 (1948)	9품사: 임씨, 언씨, 움씨, 것씨, 잇씨, 맺씨, 언씨, 억씨, 늑씨	늑씨	모임씨 → 꾸밈씨
박태운	『중등국어문법』 (1948)	8품사: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동사, 조사	감동사	
이인모	「재미나고 쉬운 새조선말본」 (1949)	6품사: 임자씨, 풀이씨, 매김씨, 어찌씨, 느김씨, 토씨	느김씨	
정인승	『표준 중등 말본』 (1949) 『표준 고등 말본』 (1956)	7품사: 이름씨, 움직씨, 그림씨, 매김씨, 어찌씨, 느김씨, 토씨	느김씨	의미 기능
이승녕	『중등 국어문법』 (1956) 『고등 국어문법』 (1956) 『중세 국어문법』 (1961)	8품사: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감탄사	뜻 구실 형태 구조 및 어미 변화
이희승	『초급국어문법』 (1949)	10품사: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존재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접속사, 조사	감탄사	의미 기능
정경해	(1953)	9품사: 명사, 수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 토	감탄사	
허용	『우리 예말본 -15세기 국어 형태론』 (1955)	10품사: 이름씨, 대이름씨, 썬씨, 매김씨, 어찌씨, 이음씨, 느김씨, 움직씨, 그림씨, 잡음씨, 토씨	느김씨	구실, 굴곡 방법, 의미
김민수	(1955)	7품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관형사, 접속사, 환투사	환투사	문법적 기능
김민수 외	『새교문법』 (1960)	7품사: 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	감탄사	

위의 표에서 나와 있듯이 문법서에 따라 품사분류체계에서 감탄사의 배열순서와 용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최현배의 『중등조선말본』(1934)이 『한글마춤법통일안』에 기초한 최초의 문법서이다. 이는 체계를 갖춘 문법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어 문법 연구의 제2기에서는 최현배의 연구 업적 중에 『중등교육조선어문법』(1936), 『우리말본』(1937), 『고등말본』(새판)(1956년) 등이 있다. 이 문법서에서 제시된 체계는 앞서 살핀 10품사의 문법체계이다.

최현배(1955)에서는 느낌씨가 꾸밈씨이지만 그중에 독립성이 가장 많다고 보았다. 이를 (10)과 같은 표로 설명하였다.

- (10) 느낌씨.....(1)
 - 이름씨
 - 대이름씨 임자씨
 - 셈씨
 - 움직씨.....으뜸씨 (2)
 - 그림씨 풀이씨
 - 어찌씨
 - 매김씨.....꾸밈씨 (3)
 - 잡음씨
 - 토씨.....(4)

(최현배, 1955, p. 204)

(10)에서는 최현배의 품사체계와 각 품사의 독립성의 정도를 볼 수 있다. 최현배가 느낌씨를 “제 홀로도 능히 한 덩이의 사상 감정을 완결한 형태로 들어낼 수 있는 점에서 독립성이 풍부하다”고 하였고 (1)에 포함시켰다(최현배, 1955, p. 204).

이 외에도 최현배(1960)에서는 감탄사에 대하여 ‘마디나 월 앞에서 그것들을 꾸미는 씨를 이름이나, 그 꾸미는 내용은 여러 가지의 느낌하고 부름과 대답과의 첫머리하고를 들어내는 것’이라 하였고 감탄사의 종류로 감정감탄사와 의지적 감탄사로 나누었다. 감정적 감탄사를 25가지로 세분화시켰는데 이의 예는 다음과 같다(허재영, 2001, p. 70).

- (11) ‘기쁨, 성냄, 슬픔, 걱정, 한숨, 놀람, 두려움, 여김(인정), 낙떨어진(낙담), 뜻같은(득의), 즐거움, 시원(유쾌), 놀림, 코웃음(비소), 우서움(가소), 깔봄(경시), 물리침(배척), 아양(애교), 앓음(신음) (허재영, 2001, p. 71)

최현배(1960)에서는 의지감탄사에 대해 ‘피임이나 부름 같은 의지의 앞머리에 쓰이는 감

탄사라고 하였고 다음과 같이 9가지로 구분하였다(허재영, 2001, p. 80). (1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지 감탄사는 의미에 따라 분류한 것을 볼 수 있다.

(12) ‘단념, 주의, 추어줌(독려), 꺾임(유치), 재촉, 어름(위협), 힘씀(합력), 부름(호칭), 대답’
(허재영, 2001, p. 80)

심의린의 『중등학교조선어문법』(1936)은 중등학교용 교과서이다. 여기서 심의린(1936)은 최현배와 마찬가지로 품사를 10개로 보고 있는데 이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존재사, 조동사, 조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이다. 심의린(1936)이 고유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완응(1929)의 체계와 일치하다(고영근 외, 2001, p. 122).

권영달의 『조선어문정체』(1941)의 문법체계가 6품사이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발사, 조사로 구분하였다. 이는 최현배, 심의린과 비교할 경우 품사가 줄어들었고 현대한국어에 해당하는 감탄사를 ‘감발사’라고 한 것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권영달은 주시경의 9품사와 박승빈의 12품사를 비판하였다(고영근 외, 2001, pp. 122-123).

이상춘의 『국어문법』(1946)에서도 품사가 6개이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 토이다. 이 체계에서는 수사가 없고 토를 설정한 것을 볼 수 있다. 조사, 접속사, 종지사가 토에 포함된다. 감탄사를 부사와 같이 수식어로 보고 있다(고영근 외, 2001, pp. 125-126). 이는 이상춘(1946)은 감탄사의 기능을 수식어로 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렬모의 『신편고등국어문법』(1946)에서는 품사 수가 5개로 줄고, ‘명사, 동사, 관형사, 부사, 감동사로 구분하였다. 이외에도 홍기문의 『조선문법연구』(1947)에서는 품사가 마찬가지로 5개이지만 용어가 다르다. 체사(體詞), 개사(介詞), 용사(用詞), 투사(投詞), 부사로 구분하였는데 감탄사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고영근 외, 2001, pp. 127-130). 품사분류 기준이 단어의 기능이다(金東鉉, 1998, pp. 36-37).

(13) “관념을 주관적으로 표시함.”

“요, 말이야, 저어, 웨에, 아아. 아차, 에그머니...” (金東鉉, 1998, p. 37).

(13)에서 보듯이 정렬모(1946)은 의지, 느낌, 놀라움이 아니라 관념을 중시하여 감탄사가 화자와 직접 관련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김근수의 『중한국문법책』(1947)에서는 13품사로 보고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존재사, 지정사, 관형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 조용사, 조사로 분류하였다. 이는 앞서 살핀 체계와 수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감탄사라고 하였다. 또한 조선어학회 『큰사전』(1947)에서는 10품사로 정하고 ‘이, 대, 셈, 어, 음, 잡, 언, 엇, 느, 토’라고 하고 ‘느’는 감탄사이다(고영근 외, 2001, pp. 133-135).

김윤경의 『나라말본』(1948)에서는 9품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입씨, 언씨, 움씨, 것씨, 잇씨, 맺씨, 언씨, 억씨, 늑씨이다. 이는 김두봉의 문법체계와 동일하다. 여기서 단어의 분류를 생각씨, 토씨와 모임씨로 나누었다. 현대한국어의 감탄사를 ‘늑씨’로 보고 있고 ‘늑씨’를 모임씨에 포괄시켰다. 모임씨에는 꾸밈씨 즉 꾸밈의 기능을 갖는 단어들이 속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감탄사의 기능을 꾸밈으로 보았다(고영근 외, 2001, p. 138).

박태운의 『중등국어문법』(1948)에서는 한국어 품사가 8품사로 정하고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동사, 조사로 분석하였다. 감탄사를 여기서 ‘감동사’라고 하였다. 또한 이인모의 『재미나고 쉬운 새조선말본』(1949)에서는 최현배의 문법체계와 다른 것은 감탄사에 해당하는 “느낌씨”를 “꾸밈씨”에서 “홀로씨”로 변경한 것이다. 5품사로 보고 입자씨, 풀이씨, 매김씨, 어찌씨, 느낌씨, 토씨라고 하였다(고영근 외, 2001, pp. 139-140).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토를 품사로 인정할 경우 감탄사를 뒤에서 두 번째 순서에 놓이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인승의 『표준 중등 말본』(1949)와 『표준 고등 말본』(1956)에서는 품사를 7개로 보고 있고 이릅씨, 움직씨, 그림씨, 매김씨, 어찌씨, 느낌씨, 토씨로 분석하였다. 품사분류 기준이 의미와 기능이다(김석득, 1983, pp. 371-372). 여기서도 품사의 고유어 명칭을 볼 수 있다. 정인승은 ‘느낌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4)에서 나와 있듯이 감탄사가 다른 단어에 의존하지 않고 화자의 느낌과 간단한 의사를 나타낸다.

(14) “느낌씨(감탄사) 다른 낱말과 직접붙지 않고 따로 떨어진대로, 월의 앞이나 중간이나 뒤나에 덧붙이기는 지, 혹은 월은 없이 월의 대신으로 되든지 하여, 느낌이나 간단한 의사를 나타내는 낱말들을 느낌씨(감탄사)’라 한다.”

“아, 아차, 아하, 허허, 아이고, 아따, 얼씨구, 여보 예, 오냐 자, 옛다, 글썸. 워리, 구구, 미, 머, 멀, 말이지, 어, 예, 저, 음, 거시기, 예험...” (金東鉉, 1998, p. 34)

이승녕의 『중등 국어문법』(1956), 『고등 국어문법』(1956), 『중세 국어문법』(1961)에서는 뜻, 구실, 형태 구조와 어미변화를 품사분류 기준으로 들었고 한국어 품사를 8개로 나누었다. 이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이다(김석득, 1983, pp. 424-426). 이승녕(1961)에서 감탄사를 감정으로 나타내는 단어로 한정되었다.

(15) “우리가 감정에 넘치어 발하는 말이다.”

“아, 예라, 어머니. 아이구, 예따, 아따, 허허. 음, 예끼. 흥, 후유, 여보, 애, 오냐”

(金東鉉, 1998, p. 40)

이희승의 『초급국어문법』(1949)에서는 한국어의 품사를 10개로 보고 있다. 이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존재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접속사, 조사이다(고영근 외, 2001, pp. 141-143). 이희승의 『중등말본』(1956)에서는 감탄사에 대해 (16)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16) “한 개의 단어로서 한 덩어리의 느낌이나 생각을 단번에 나타내는 일 따라서, 주어나 서술어가 없어도 한 개의 글월 노릇을 하는 일 흔히 감탄하고 느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 일들을 나타내는 말을 감탄사(感歎詞)라 일컫는다.”
 “자아. 하하, 허허, 호호, 웁지, 웁아, 아아. 아이구, 저런, 살구시니. 얼함쇼, 애, 네, 여보, 그래...” (金東鉉, 1998, p. 36)

위의 설명에서 보듯이 감탄사가 독립적으로 쓰이고 느낌뿐만 아니라 생각도 표현할 수 있다. 토와 더불어 접속사도 품사에 포괄시킬 경우 품사 목록에서 감탄사의 배열순서가 달라지며, 뒤에서 세 번째에 위치하게 된다.

허용의 『우리 예말본 -15세기 국어 형태론』(1955)에서는 10품사를 설정하여 이를 이름씨, 대이름씨, 셈씨, 매김씨, 어찌씨, 이음씨, 느낌씨, 움직씨, 그림씨, 잡음씨, 토씨라고 하였다. ‘느낌씨’가 감탄사에 해당한다. 허용의 품사분류 1차적 기준이 구실과 굴곡 방법이었다. 따라서 ‘느낌씨’가 하나의 기능을 갖는다고 보고 이를 홀로씨(독립사)라고 명명하였다(김석득, 1983, pp. 443-448).

김민수(1955)에서는 품사를 7개로 보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관형사, 접속사, 환투사로 분류하였다. 김민수는 문법적 기능에 따라 품사를 분류하였고, 그는 감탄사를 ‘환투사’로 명명하였다. 김민수는 ‘환투사’에 대해 (17)과 같이 말하였다(金東鉉, 1998, pp. 40-42).

- (17) 환투사: 喚投詞는 相言의 공통 성질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또 글월의 보통 성분과의 관계가 일정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마치 따로 설 수 있는 글월과도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순전히 독립해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아. 아아, 아이. 아이구, 야. 어, 에그. 오, 오오, 웁다, 웁지, 원흥, 만세. 자. 자아, 저런. 참, 여보, 여보시오, 애. 여러분” (金東鉉, 1998, p. 41)

(17)에서 보듯이 감탄사가 다른 단어에 의존하지 않고 사용되지만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김민수 외(1960) 『새고교문법』에서는 품사를 마찬가지로 7개로 보았으나 품사의 배열순서와 감탄사의 명명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새고교문법』에서는

품사를 ‘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로 처리하고 있고 ‘환투사’가 ‘감탄사’로 바뀌었다. 이 외에도 정경해(1953)에서는 문법체계를 9품사로 보고 명사, 수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 토로 구분하였다(고영근 외, 2001, pp. 143-144).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제2기(1934년-1963년) 문법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품사 체계에서 감탄사의 품사 지위, 나열순서와 명칭의 차이가 확인된다. 우선 한국어 품사 체계가 5품사에서 13품사까지 처리되었는데 이는 제1기(1897년-1933년) 문법연구와 다르다. 둘째, 감탄사의 명칭이 ‘느낌씨, 감탄사, 감발사, 감동사, 환투사’였다. 셋째, 이인모(1949)와 허웅(1955)에서는 ‘느낌씨’를 ‘꾸밈씨’가 아니라 ‘홀로씨’로 보고 있고 이는 감탄사의 정의가 현대 한국어와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다. 토와 접속사가 품사로 다루어지느냐에 따라 감탄사의 품사 체계에서의 배열순서가 달라졌다.

3. 『학교문법통일안』에서의 감탄사

『학교문법통일안』이 1963년7월25일에 공포되었고 통일안에서 3가지 내용이 언급되었다. 첫째, 한자어계 문법 용어 선택; 둘째, 조사는 단어로, 어미는 단어의 일부분으로 처리; 셋째 지정사를 인정하지 않는 9품사 체계 선택 등이다(채완, 2011, p. 135). 학교문법의 품사 체계가 (18)과 같다(고영근 외 2001; 이익섭, 2005; 채완, 2011).

(18)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고영근 외 2001, p. 150)

(18)에서 보듯이 학교문법은 9품사이고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이다. 감탄사의 예시를 (19)와 같이 들 수 있다.

(19) 가. 아! 벌써 달이 뜨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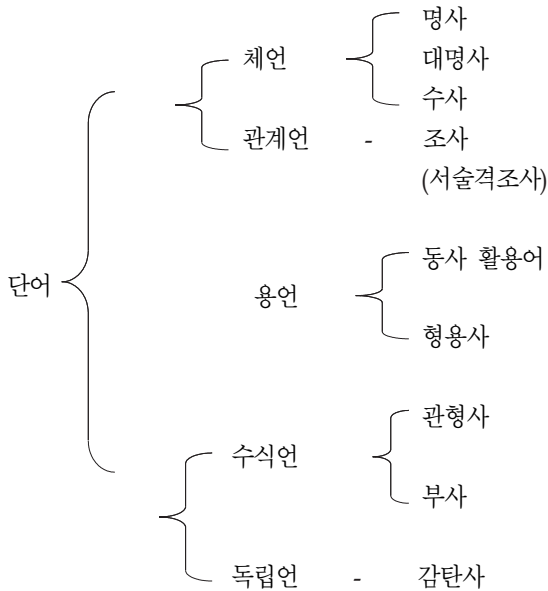
나. 그래, 빨리 가 보자. (남기심 & 고영근, 1985/1993, p. 63)

(19가)의 ‘아’는 화자의 느낌을 뜻하고 (19나)의 ‘그래’는 화자의 응답을 뜻한다(남기심 & 고영근, 1985/1993). 이 외에도 감탄사 자체가 하나의 발화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연구도 있다.

- (20) 철수: 세 시가 되었네.
 영희: 아차, 내 정신 좀 봐.
 철수: 왜 약속 있었니? (구본관 외, 2015, p. 191)

다음 (21)에서는 기능에 근거한 현대한국어 품사분류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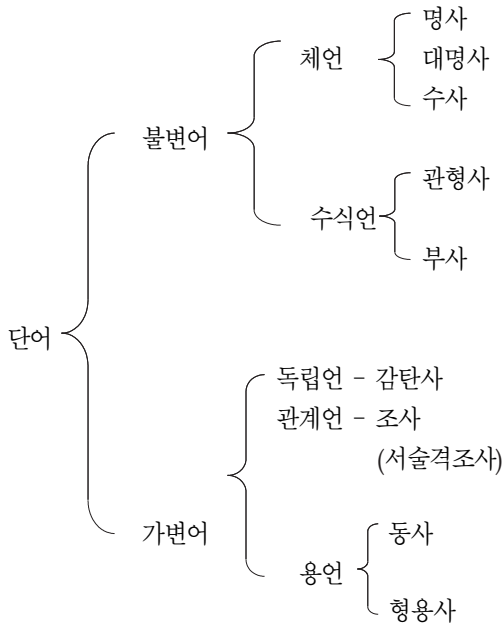
(21)



(남기심 & 고영근, 1985/1993, p. 64)

(21)에서 보듯이 단어를 기능에 따라 체인, 관계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다.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인에 속한다. 조사가 관계언이고 동사와 형용사가 용언이다. 서술격조사, 동사, 형용사가 활용어이기도 하다. 관형사와 부사가 수식언, 감탄사가 독립언에 속한다. 다음은 활용에 따른 단어의 분류이다.

(22)



(남기심 & 고영근, 1985/1993, p. 65)

위의 (22)에서 나와 있듯이 단어를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눌 수 있다. 가변성이 활용을 뜻하는데 활용하지 않는 단어가 불변어이고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활용하는 단어에 관계언 중에 서술격조사와 용언이 속한다. 따라서 활용은 술어에서 나타나고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 등을 통해 서술격조사, 동사, 형용사의 형태가 시제와 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뜻한다.

남기심 & 고영근(1985/1993)에 따르면 감탄사가 자립성이 가장 강한 품사이고 독립적으로 흔히 사용된다. 현대한국어에서는 감탄사를 3가지 하위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감정 감탄사, 의지 감탄사, 임버릇과 더들거림 감탄사이다(최형용, 2016). 다음은 감정 감탄사이다.

- (23) 깨달음: 아하, 아
 뉘우침: 아차
 아픔: 아으, 아이루
 슬픔: 아, 어이
 힘듦: 아이고, 아휴

놀람: 아, 이크, 왓, 어머, 으악
기쁨: 오, 와, 우와
즐거움: 하하, 허허, 호호 (최형용, 2016, p. 287)

(23)에서 ‘깨달음, 뉘우침, 아픔, 슬픔, 힘듦, 놀람, 기쁨, 즐거움’ 등의 감정 감탄사를 볼 수 있다. 다음은 의지 감탄사이다.

(24) 승낙: 아무려나
화냄: 놀람이나 조롱
금지: 아서
확인: 왜
재촉: 자
머뭇거림: 자기
긍정: 응, 네
부정: 아니, 아니요 (최형용, 2016, p. 289)

최형용(2013)에 따르면 의지 감탄사는 감정뿐만 아니라 ‘응, 네, 니, 아니요’와 같이 상대 높임까지 나타낼 수 있다. 다음은 입버릇과 더들거림 감탄사이다. (25가)는 ‘일종의 입버릇’ 감탄사이고 (25나)는 ‘더들거림’ 감탄사이다.

(25) 가. 머, 말이지, 그래
나. 어, 저, 음 (최형용, 2016, p. 290)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학교문법통일안』이 1963년7월25일에 공포되고 나서 한국어 품사 체계가 9품사가 되고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로 분류된다. 감탄사는 독립언의 기능을 하고 감정 감탄사, 의지 감탄사, 입버릇과 더들거림 감탄사와 같은 3가지 하위유형으로 구분된다.

4. 나가기

본고에서는 개화기부터 1963년의 『학교통일안』 공포까지 한국어 문법 그중에도 감탄사의 연구를 통시적 관점에서 살펴봤다. 남한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연대별로 나누는 것은 고영근 외(2001)의 논의에서 언급한 제1기(1897년-1933년)과 제2기(1934년-1963년)에 초점을 기

존의 논의를 살폈다. 현대한국어 감탄사에 해당하는 문법 범주의 범위, 명명, 하위유형, 통사적 기능의 변천사를 살피기 위해 최현배(1955, 1971, 1999), 김석득(1983, 2009), 金東鉉(1998), 고영근 외(2001), 최형용(2012, 2015)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제1기(1897년-1933년)의 한국어 문법 연구에서 품사 체계에 감탄사를 포괄시켰다. 단어와 품사에 대한 인식에 따라 품사분류 기준과 방법이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형태, 의미, 기능이 주요 품사분류 기준이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감탄사가 단어의 의미에 따라 품사분류에 속했다. 품사 체계 배열순서에서 감탄사가 마지막 또는 뒤에서 두 번째 순서에 배열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 한국어 문법에서 품사 구분을 적게 한 연구가 정렬모(1946), 홍기문(1947)이 있고, 이들은 품사를 5가지로만 구분하였다. 품사 수가 가장 많은 체계는 박승빈(1931)의 12품사와 김근수(1947)의 13품사이다. 1963년에 공포된 『학교문법통일안』에서는 9품사로 구분하였고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로 확정되었다.

둘째, 문장성분의 경우 감탄사가 ‘꾸밈씨’(수식언)(최현배, 1930; 권영달, 1941; 김윤경, 1948)에서 ‘홀로씨’(독립언)(이인모, 1949; 허웅, 1955)로 발달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감탄사를 수식언이나 독립언으로 처리하는 것은 단어의 기능에 초점을 두는 것을 뜻한다. 감탄사를 ‘꾸밈씨’(수식언)으로 설정한 연구에서도 감탄사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다.

셋째, 문법 용어에 있어 고유어 어휘와 한자어 어휘 사용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감탄사, 감동사, 경각, 감동, 놀, 늑, 늑임말, 느낌씨, 늑씨, 감발사, 환투사’이다. 주시경, 최현배 등에서 지적된 것처럼 명칭에 있어 고유어 사용이 한국어 문법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우선 한국어 품사와 특히 그중에 감탄사와 관련 모든 선행연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제3기(1964년부터) 문법 연구를 연구 대상과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감탄사의 하위유형, 용례, 의미적 분류까지 기존 논의를 검토하면 한국어 감탄사의 변천사를 자세히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근 외. (2001). *역대한국문법의 통합적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고영근, 이웅, 최형용. (2011). *(현대어로 풀어쓴) 주시경의 국어문법*. 서울: 박이정.
- 구본관. (2010). 국어 품사분류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형태론*, 12(2), 179-199.
- 구본관 외. (2015). *한국어 문법 총론 1, 개관, 음운, 형태, 통사*. 서울: 집문당.
- 金東鉉. (1998). 국어 품사분류 연구, *論文集*, 10(1), 23-52.
- 김석득. (1983). *우리말 연구사*, 서울: 정음문화사.

- 김석득. (2009). *우리말 연구사: 언어관과 사조로 본 발전사*. 파주: 태학사.
- 남기심, 고영근. (1985/1993). *표준 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 서일홍. (1976). 문법 교과서의 당면문제: 중학교 검인정교과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태룡. (1992). 국어 감탄사에 대하여, *동악어문논집*, 34, 7-36.
- 이익섭. (2005). *한국어 문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주시경 저; 고영근, 이용, 최형용 (공)교주. (2010). *주시경 국어문법의 교감과 현대화*, 서울: 박이정.
- 채완. (2011). 일석 이희승 선생의 학교 문법 체계, *애산학회*, 37, 133-160.
- 최현배. (1955). *우리말본/김고고침[판]*. 서울: 정음사.
- 최현배. (1971). *우리말본/4번째고침[판]*. 서울: 정음사.
- 최현배. (1999). *우리말본/열여덟번째[판]*. 서울: 정음사.
- 최형용. (2010). 품사의 경계, *한국어학*, 47, 61-92.
- 최형용. (2012). 분류 기준에서 본 주시경 품사 체계의 변천에 대하여, *국어학*, 63, 313-340.
- 최형용. (2013). *한국어 형태론의 유형론*. 박이정.
- 최형용. (2015). 안확(1917) 조선문법, *경성: 유일서관*, 2+3+87면, 142-158.
- 최형용. (2016). *한국어 형태론*. 서울: 역락.
- 金敏洙, 高永根 [공]編. (2008). *歷代韓國文法大系. 第1部 第37冊/第2版*, 서울: 博而精.
- 허재영. (2001). 감탄사 발달사. *한국어 의미학*, 9, 65-96.

사하부트지노바 루이자 조이로브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학로 91

남서울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전화: (041)-581-2321

이메일: slz0308@nsu.ac.kr

Received on April 13, 2024

Revised version received on June 26, 2024

Accepted on June 30, 2024